

가

갈보리선교회 브라가의 소식들

Berach Valley News

제42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순회전도 보고

제42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 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전도팀구성**

- 총지휘: 김승석목사(분당충만교회. 선교회장. 단장)
- 메세지 및 지도회원: 갈동수목사(미국), 김현철장도사(분당충만교회, 메세지간사), 주정림간사(분당충만교회, 서기), 윤정화전도사(분당충만교회, 회계/워십간사), 류준복간사(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김아영간사(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원종석간사(분당충만교회, 기자재간사), 박지연집사(분당충만교회)
- 단 원: 이기성(분당충만교회. 엔지니어)의 21명



기 간: 2014년1월5일(주일)~1월17일(금)
대상지역: 첫째주간-충청도(대전,충주,청주,괴산)
둘째주간-강원도(철원,화천)

5일	①대전참아름다운교회 ②충북영동용산교회	12일	①15사단사령부
6일	①충주송덕재활원 (노인복지시설)	13일	①15사단성경학교 ②15사단포병연대
7일	①증평들꽃마을 -장애인복지시설 ②37사단110연대2대대	14일	①화천임마누엘요양원 -노인복지시설 ②15사단39연대
8일	①음성소망병원 -정신병원 ②육군정보통신학교	15일	①15사단50연대
9일	①대전성심보육원 ②37사단110연대1대대	16일	①철원성모요양병원 ②15사단50연대2대대
10일	①대전천양원 -아동복지시설 ②32사단505여단3대대	17일	①철원은혜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②15사단민통선부대

후원&기도회원,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 *농협:017-12-077384
- *국민은행:825-21-0082-437
-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 회
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담지
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3. 특별전도팀,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
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학
습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
갈보리선교회.kr 또는 [갈보리선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다

육군정보통신학교
이병 이동근

목소리로, 몸짓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고 군대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는 것 만으로도 감사한데 귀한 갈보리선교회를 보내셔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또한 현재 상황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서 깊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위십, 그리고 드라마까지! 정말 많은 것 준비하셔서 덕분에 정말 영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만큼이나 은혜로 가득 찬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청년들이 복음 들고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했고 다시금 사명감당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대전)참아름다운교회
무명

잠들어 있던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들고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에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몸짓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을 재점검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충북영동)용산교회

박성희 권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갈보리선교단의 찬양과 드라마, 정말로 감동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신앙을 재점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다짐합니다. 갈보리선교단의 무궁한 발전과 온 땅 구석구석에 작은 등불로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이런 외진 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시는 은혜 감사

15사단50연대3대대
병장 한창호

정말 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축복을 전하러 와주셔서 고맙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군대의 특성상 종교 참여도가 낮아 저도 은혜를 받기 힘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군중병인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멋지고 은혜로운 선교활동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날 밤 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15사단사령부
상병 임국현

갈보리선교회의 위문예배를 드리는 동안 느낀 것이 많았다. 나의 죄인됨과 회개,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회개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대하여 느낀 점이 많았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회개이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선교회에서 준비해 온 많은 것들을 보고 정말 느낀 점이 많았다. 오프닝부터 중간중간 있었던 드라마 등 오늘 믿지 않는 장병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정말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느낌

15사단포병연대
상병 김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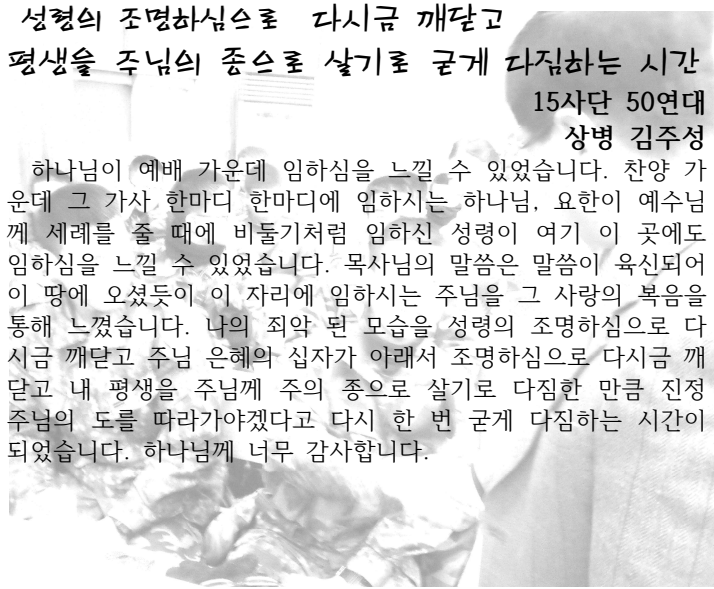
갈보리선교회에서 위문공연을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드라마였다. 다른 교회팀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어서 뭔가 색달랐고 내용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중간중간 목사님이 설교 하셨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 뭔가 마음에 가득 채워진 느낌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금 깨닫고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시간**

15사단 50연대
상병 김주성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임하시는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이 여기 이 곳에도 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해 느꼈습니다. 나의 죄악 된 모습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금 깨닫고 주님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조명하심으로 다시금 깨닫고 내 평생을 주님께 주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한 만큼 진정 주님의 도를 따라가야겠다고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심장이 쿵쿵쿵

15사단 정비대대
상병 전지원

2014년 첫달, 영적인 vision을 꿈꾸며 한 해의 소망을 품으며 마음을 굳게하고 있는 요즘, 예기치 못한 갈보리선교회의 방문은 나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심장이 쿵쿵쿵 뛰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서 매 번, 매 순간 영적 굼뜰함,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구하고 다짐했었지만 쉽게 행하거나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보리선교회와 예배를 드리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날 뜨겁게 만들고, 그와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열정이 날 도전하게 만들고, 목사님의 말씀은 날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갈보리선교단의 아름다운 순종이 열매를 맺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슴에 분명히 갈보리선교회 열매가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갈보리선교회의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길...

무더진 영혼이 다시금 뛰기 시작한 시

15사단50연대3대대
상병 김동원

우선 먼 화천까지 군장병을 위해 늦은 시간 부대를 방문해 주신 갈보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 15사단 50연대 3대대를 대표해 이 글을 씁니다. 군 생활에 찌들고 조금 무더진 영혼이 다시금 뛰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특징상 오는 구성원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제약이 많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시절 교회에서 활동하며 뛰며 주를 찬양했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몸으로 찬양할 때 아직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가 있음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무언극도 죽음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군 사역에 힘써주는 갈보리선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 줄 만큼 나에게 도움이

15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상병 김남규

7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밥도 대충 먹고, 씻지도 않고 부랴부랴 명포교회로 왔다. 하루의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저 멀리 분당에서 우리들을 전도하기 위해 강원도까지 찾아온 목사님과 단원들이 준비해 오신 프로그램들과 공연, 그리고 설교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 줄 만큼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나가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다.



아쉽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15사단50연대3대대
병장 임호순

이 먼 오지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전우들도 같은 마음이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느낍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성소망병원
이도영 권사

주님의 광대하심을 느낀다. 집회 내내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오 할렐루야!가 연발되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다. 드라마를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 같았고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다. 내가 본 공연 중에 최고의 놀라운 공연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찼다
화천임마누엘요양원
주금옥

천지창조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생기를 잃고 있을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 사건을 몸, 찬양을 통해 보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접기도를 따라할 때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충주승덕재활원
사회복지무요원 김상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또 찬양팀에서 보여준 연극(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리라 다짐해봅니다.



가슴 가득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대전천양원
교사 이연실

이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은 춥고 우울한 날씨에 주님의 말씀과 찬송이 피쳐 가슴 가득 따뜻하게 채워 줍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껴 봅니다. 새로운 힘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대전성심보육원

김두련

먼저 예배로 깜짝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에 핵심이 있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지를 한번 더 확인받았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심원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아들, 딸로 키울 수 있는 동산이 되고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큰 감동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전천양원
교사 김연희

마이크, 조명, 통일된 찬무복! 아이들이 집중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찬양곡으로 찬무와 함께 보고 들으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아름다운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났으리라 믿습니다.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큰 감동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 쉽게 이해

철원성모요양병원
박상미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행복에 관한 말씀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고, 열정적인 단원들 덕분에 공연시간을 길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깊이 공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전도가 우선순위다!

윤정화(위십간사,회계)

추운 날씨를 걱정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주셨다. 아침부터 감사하며 집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오늘은 어제 갑작스럽게 변경된 “들꽃마을”이라는 요양원과 괴산대대 집회가 있는 날이다.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마을의 전경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곳에 위치한 들꽃마을에는 중증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격한 반응도 보이셨지만 어르신들이 집중하며 집회에 잘 참석하셨다. 특별히 오늘은 군복무중인 이진수 단원이 휴가 나와 합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을 텐데 기꺼이 달려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귀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전도가 우선순위다. 그래서 가족이 섭섭해 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전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갈보리선교단을 끊임없이 사역을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된다. 저녁에 괴산대대는 후방이어서 그런지 비상근무자들만 빼고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많이 모이질 못했다. 하지만 조는 사람 없이, 강당이어서 추웠을 텐데 성실히 호응해 주는 부대였다.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이 순회전도를 어느 때보다 더 충성되게 잘해서 2014년을 멋있게 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만지심

유인혁 단원

42차 국내순회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간다. 대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요양원과 고아원, 병원과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곳곳을 찾아다녔다. 두 주간 이어진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더욱 깨달았는데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각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번 순회전도를 시작하며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염려거리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예배 시간, 집회 중에, 단원들과의 기도회 중에, 개인경건생활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 감사와 회개를 계속 이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만지심은 나뿐아니라 다른 단원들이나 집회 때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 더욱 감사하였다. 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참으시며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

최수진 단원

오늘 송덕재활원의 집회는 나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이곳은 도착했을 때 마25: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의 말씀을 새기며 ‘몸과 정신이 불편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자! 복음을 전하자!’ 마음 속으로 외치며 집회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십하는 순간 순간 박수를 쳐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대부분 곡이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주시는데 송덕재활원의 사람들은 한 동작마다 아름답다며 은혜 받았다는 표시로 박수를 쳐주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불편했기에 아무 때나 박수를 친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순수함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박수에 나는 울컥하게 되었고 나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했고, 내가 저들을 그저 지극히 작은 자로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3:8 말씀이 생각났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맞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고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귀한 날이었다.

눈빛이 변하고 딴 짓하던 행동들은 줄어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기에 바쁜 모습들

최수양 단원

순회전도를 시작한 지 3일째가 되었다. 아직 순회전도의 사분의 일도 안했지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늘 집회에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보였다. 처음에 집회를 시작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치던 할머니, 노래를 부르던 할머니, 고개를 푹 숙인 장애인, 손장난하기 바쁘던 군인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집회가 끝나갈 때쯤엔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딴 짓하던 행동들은 줄어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기에 바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순간이었다. 우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가지각색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어졌으리라 나는 믿는다. 짧은 두 시간 이들과 함께한 귀한 천국찬치동안 그들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 앞으로써 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발점이 되었음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강력히 역사하심

김아영(영어간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오늘은 인생 말년에 접어든 어르신들과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처음에는 비협조적이고 좀 귀찮은 듯 우리를 대하던 사람들이 집회 후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방문한 요양원의 예배처소가 협소해서 강대상을 옮긴다 했을 때 그다지 내키지 않는 내색을 하며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 주셨던 관리자 분이 집회 후에는 90도 인사를 하며 우리를 천사 대하듯 대해주셨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오늘 만난 연대장 집사님이다. 그분의 표정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는다. 연대장이면 엄청난 사람들을 수하에 둔 대령인데 집회 후 그분의 표정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하였다. 지위계층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강력히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인생역전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 복음을 통해 소리지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며 이 후에도 우리를 이 귀한 사역에 주역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한다.



2013년 9월이후 평상시 집회 감상문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보훈병원
김운자 목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과 역사하시고 계심이 갈보리선교회의 모습 속에 충만함으로 마음에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청년들의 찬양과 워십에는 밝은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넘쳤고 목사님의 말씀에도 생명에너지가 충만했고 목사님의 음성도 멋진 능력 그대로였습니다. 설교 내용도 너무나 본질적인 내용으로 회개할 수 있게 우리 교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 누구에게나 진리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특히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음만도 아름다운 것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예배할 때에 임하는
그 마음들이 매우 크기에
갈보리선교회의 예배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212연대 2대대
일병 도신은

갈보리선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웅장하고 스케일이 남다르다. 배경 음악이 많아셔도, 등장하는 인원이 많아셔도,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셔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온 몸으로 예배할 때에 임하는 그 마음들이 매우 크기에 갈보리선교회의 예배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들의 손짓 하나에, 목소리 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져 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가 누구시길래 이리도 크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가 싶어 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이렇게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메말라 있던 나에게 내리는
한줄기 소낙비가 되었다

8사단 95포병대대
무명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힘든 군대라는 곳에서 조금 메말라 있던 저에게 내리는 한줄기 소낙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춤도, 무대도 저희를 위해 노력하신 마음이 보여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이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찬양소리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천한나요양원
이옥화 권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패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갈보리선교단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찬양소리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김승석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뜻을 구원하셨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천지창조의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잘 표현되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으며 다시 한 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죄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다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선교단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선교회의 선교활동과 늘 변함없는 마음에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7군단 7포병여단 661대대
상병 김빛찬

감상문을 약 1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갈보리선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등병이었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죠. 그때 갈보리선교회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직도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갈보리선교회 단원들과 목사님을 뵈었을 때 1년 전처럼 변함없이 한결 같다는 것을 느꼈죠. 저도 늘 주일예배와 새벽기도를 다녔던 지체로서 갈보리선교회의 선교활동과 늘 변함없는 마음에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갈보리선교회에 공연을 처음 보았을 때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고, 두 번째 보았을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보리선교회 특별팀의 공연을 정말 잘 보았고 간사님과 목사님 말씀 모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661대대 장병들에게 정말 자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호된 훈련 속에 지친 저희 661대대 장병들에게 힘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661대대 장병들에게 뜻 깊은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에 저희 대대 군중병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전방, 후방 부대와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 뜻 깊은 일을 하는 갈보리선교회가 언제나 주님 곁에서 보호 받길 원합니다.

News 회원소식

유치장전도 감상문

부임

김현성목사님께서 수원화산교회 부목사로 부임 하셨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입단

권지현(19세, 분당충만교회)이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입단하여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졸업 및 진로

백승범(단원)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첫출발을 하게 되었고, 최수양(단원)이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발을 내딛습니다. 권지현(단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이었다

백승범(단원)

유치장 전도를 시작한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 단원들의 모습을 캐릭터로 그려서 고맙다고 하며 선물로 주신 일, 외국인 유치인에게는 유창하게 영어로 복음을 전해 외국인들도 그 유치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등등 많은 일이 있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들처럼 딱딱하기도 했고, 뒤돌아 등지고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중간중간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복음을 전할수록 자제가 겸손해지고 복음을 경청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다. 앞으로도 유치장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가정교회개척

16년째 동역하고 있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신 최금호전도사님(대령 (예), 국방부) 부부가 가정교회를 개척(예벤에셀청소년비전교회) 하셨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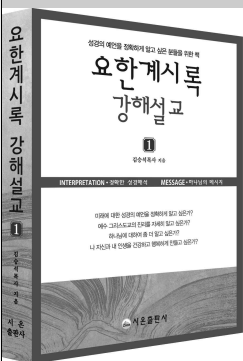
진중세례식

2014년 3월 30일에 남평양노회 군경목부 주최로 갈보리선교회와 함께 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250여명이 세례를 받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서출간-요한계시록 강해집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특징점



김승석 목사님의 첫 번째 강해설교집 [요한계시록 강해설교]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3권을 출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성경 강해설교집을 계속해서 출간할 예정이오니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문장과 단어들을 원어를 살펴서 정확한 번역과 해석을 하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 2 한 절, 한 절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 해석을 세심하게 하고 있고, 성경말씀이 주는
 - ①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교훈)
 - ②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책망)
 - ③잘못되고 병든 부분을 바로잡고 치료하게 하고(바르게 함)
 - ④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 성숙케 합니다.(의로 교육함)
 단지 성경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는 사람이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 3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해석과 가르침을 정확히 알게 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혼자서 계시록을 공부하려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하기 쉽고 큰 은혜를 받게 하며 가급적 복잡한 원어 설명이나 학적 서술을 지양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4 모든 해석과 메시지는 복음을 중심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본문에 충실을 시하고 있습니다.
- 5 목차는 계시록의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미리 상세히 볼 수 있게 하였고, 각 편 마다 큰 제목과 중간 제목과 소 제목을 명기하여 각 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서 살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6 전체 144편으로 구성하였고, 각 편은 대, 중, 소 제목을 명기하고, 해당 본문을 각각 수록하여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고도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가르치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7 각 편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눈에 쉽게 보여지고 강조되도록 **고딕체나 붉은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8 본 책은 각 편을 그대로 사용하며 예배시 설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성경공부반이나 그룹모임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매일 한 편씩 읽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그룹 모임시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화면에 띄우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별도로 영상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영상자료는 별도로 구매문의 바람)

파워포인트 영상은 한 두 문장씩 화면에 나타나도록 제작되어 있으므로 각 편을 지도자가 설명할 때, 본인 또는 보조자가 차례로 화면에 문장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Ministries of Calvary

사역 소기

국내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 everything**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 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 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부흥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1월과 8월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에 사역합니다.

해외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전도사역으로 현지교회, 학교, 교도소, 마을 광장, 공연장 등에서 전도집회를 합니다.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교육훈련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부교회인 분당 충만교회에 모여 영성훈련과 프로그램 연습을 합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목장모임

매주 1회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훈련

1월과 8월에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13년 1월 ~ 2014년 2월

1/18	양구소규모노인요양원	6/23	55사단171연대2대대	12/29	국군의무사령부
	21사단96포병대대	6/30	송파임마누엘집(장애인시설)	1/5	대전참아름다운교회
1/27	공군20전투비행단	7/7	52사단213연대		영동용산교회
2/3	구세군과천양로원	7/14	52사단212연대		충주승덕재활원(장애인시설)
2/10	51사단167연대3대대	9/1	3사단18연대2대대	1/7	음성소망병원(정신병원)
2/24	9사단신병교육대	9/8	2기갑여단6전차대대	1/8	대전육군정보통신학교
3/1	6군단6포병여단911대대	9/15	52사단212연대	1/9	대전성심보육원
3/3	영락경로원(노인시설)	9/18	25사단70연대1대대		청주대대
3/10	17사단100연대		용인성은실버케어스	1/10	대전찬양원(아동시설)
3/17	이천한나원(노인시설)	9/29	7포병여단661대대		유성대대
3/24	6사단2연대	10/3	정자메디케어(노인시설)	1/12	15사단사령부
3/31	용인이름다운요양원(노인시설)	10/6	8사단포병연대95대대	1/13	15사단포병연대
4/7	1포병여단868대대	10/9	이천한나원(노인시설)	1/14	화천임마누엘요양원(노인시설)
4/14	용인수연당(노인시설)	10/13	6사단7연대1대대		15사단39연대
4/21	17사단102연대2대대	10/20	성남늘푸른요양원(노인시설)	1/15	15사단50연대
4/28	6사단7연대1대대	11/3	9사단신병교육대	1/16	철원성모요양병원
5/5	한국보훈병원	11/10	6군단6포병여단911대대		15사단50연대2대대
5/12	한국의국인선교회	11/17	28사단1포대	1/17	철원은혜장애인요양원
5/19	1113공병단157공병대대	11/24	1사단15연대2대대		15사단민통선부대
5/26	20사단포병여단	12/1	1포병여단3포병단651대대	1/26	이리임상교회
6/2	광명평강의집(노인시설)	12/8	5포병여단5포병단103대대	2/2	한국보훈병원
6/9	61사단178연대	12/15	28사단신병교육대	2/9	55사단170연대1대대
6/16	8사단포병여단73포병대대	12/22	아가페소망교도소		